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 학교 교육과 연계 사례의 현황과 평가

김 은 규*

目 次

- I. 머리말
- II.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 개황
- III. 시민사회단체의 학교교육 연계 미디어교육 사례
- IV. 학교교육 연계 미디어교육의 한계 및 제언

국문초록

미디어교육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실천의 문제 역시 논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국내의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은 대부분 특별활동과 특강 형태의 강좌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나아가 이들 사례의 대부분은 공교육의 제도적 틀 속에서 진행되기 보다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 미디어교육의 경험적 실천이 대부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과 관련된다. 때문에, 그동안 미디어교육의 역량을 축적해 온 시민사회 단체의 경험과 평가 속에서 학교 미디어교육 모델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경험 중 학교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사례(경실련, 여성민우회, YWCA)들을 살펴봄으로써 학교 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제7차 교육과정 속에서 현실적으로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활동 외에도 재량활동 시간의 충분한 활용이 필요하며, 학교 미디어교육을 담보할 강사 양성의 문제 역시 체계적인 틀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 (중앙대 언론문화연구소/책임연구원)

키워드: 미디어교육, 공교육과 미디어교육,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

1. 머리말

미디어교육 논의가 양적,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 즉, 공교육에서의 미디어교육 정착이라는 발전 방향이 당위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학교 미디어교육의 교육적 의미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실현, 통합적 교육형태의 출발, 전인교육의 구현, 보상교육의 실시라는 측면에서 찾아진다(문혜성, 2004). 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장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화 기관으로서 하나의 사회적 체제로서 인간 교육에 대한 기본적 자세를 일깨워주는 곳이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그 결과는 우리 사회의 교육문화 환경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미디어교육의 경험적 실천에서도 학교 미디어교육의 현실화를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유형은 특별활동을 통한 미디어교육, 개별과목에서의 미디어교육, 특강 형태의 미디어교육 강좌, 통합교과로서의 미디어교육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기태, 2005). 하지만, 이들 유형 역시 공교육의 제도적 틀 속에서 진행된다고 보다는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계나 깨미동(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 등 교사자율 단체의 미디어교육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 미디어교육의 현실은 국내 미디어교육의 경험적 실천이 대부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국내 미디어교육의 발전은 1980년대의 모니터 활동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에 활동 속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현재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국내 미디어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틀 짓고 있음이다. 때문에,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미디어교육의 경험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미디어교육의 역량을 축적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경험과 그 평가 속에서 학교 현장의 미디어교육 모델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시민사회단체 미디어교육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경험 중, 학교 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사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교 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단체의 미디어교육 지형을 전체적으로 재정리해보고, 경실련, 여성민우회, YWCA 등 시민단체에서 학교 특별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범교실 사례들을 검토한다.

II.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 개황

국내 미디어교육의 역사를 개괄해 보면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모니터활동을 시작한 이래 미디어교육을 사회운동 및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요컨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은 1980년대의 모니터교육 혹은 수용자운동과 그 역사적 맥락을 잇고 있는 것이다. 모니터 활동을 조직적으로 처음 시작한 곳은 1984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였으며, 1985년에 '서울 YMCA'가 학부모 대상 'TV 바로보기 교육'을 시작으로 언론수용자운동을 시작했다. 때문에 당시의 내용은 엄격한 의미의 미디어교육이라기 보다는 미디어감시를 위한 모니터요원 교육의 형태를 띠었으며, 체계성, 지속성, 전문성을 갖추었다기 보다는 일회적 성격의 강좌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교육내용도 매스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 이해, 미디어 내용의 문제점 및 모니터 방법론 등에 치중됐었다(안정임·전경란, 1999, 187-188). 이에, 국내 미디어교육 이념의 접근방식 역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미디어 민주화운동, 전통적 가치보호, 가정의 가치수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기도 한다(김택환, 2000).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국내 사회운동단체의 미디어교육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서울 YM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등 사회운동 단체에서 병행적으로 실시하는 미디어교육, 둘째는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의 미디어교육, 셋째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과 같은 사회언론단체의 미디어교육, 넷째는 매체비평우리스스로(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과 같은 수용자운동단체의 미디어교육이다.

서울 YMCA는 1984년 'TV 바로보기 교육'을 시작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YMCA는 '시청자시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모니터 감시활동, 시청자의견 수렴 활동, 퍼블릭 액세스 활동, 미디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YMCA의 미디어교육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제작 프로그램들이다. 어린이 영상만들기 캠프, 청소년 영상제작 워크샵, 청소년 영상 페스티벌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기 표현 미디어로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YMCA는 보다 적극적인 미

디어교육의 방안으로 출강교육(지도자파견)을 실시하고 있다. YMCA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은 여타의 사회단체 미디어교육에 비해 매우 다양한 대상과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예컨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 일반성인, 교사, 학부모 등 매우 다양하며, 텔레비전, 케이블TV, 광고, 영화, 통신 등 거의 모든 미디어 분야를 아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실련은 미디어워치(Media Watch)를 운영함으로써 미디어교육과 연계된다. 미디어워치는 시민사회 비정부기구의 기초적 활동인 Watch-Dog(감시, 모니터 등)에 착안한 이름으로써, 1996년 2월의 방송모니터회로 출발하였고, 2003년 3월 미디어워치로 그 이름을 변경했다. 미디어워치의 주요 활동은 방송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방송문화 정착을 위한 시청자운동의 틀 속에서 TV프로그램 모니터 및 보고서 발간 활동과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 활동이다(경실련 미디어워치). 요컨대, 경실련의 미디어워치는 방송모니터 활동과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 활동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등 미디어교육 시범교실'은 미디어교사 양성 교육 및 교재개발 사업과 연계되면서 체계적인 틀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점,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이정춘, 2004, 587-591).

참교육학부모회의 미디어교육 역시 1993년의 모니터 강좌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참교육학부모회는 여타의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모니터 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했다. 특히, 2004년부터 시작된 'YP(Youth Patrol) 학부모 지도자 양성사업 및 지역활동'은 지역별 학부모 지도자 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YP사업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YP 학부모 지도자 양성 사업으로서 YP활동을 담당할 학부모 지도자 및 지역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 YP활동 사업으로 미디어와 연계된 지역 동아리활동이나 저소득층 방과후 교실 지원활동이다(박이선, 2004). 즉, YP 학부모 지도자 양성과 지역 YP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그간의 단기적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지역활동을 통한 미디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여성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로는 한국 여성민우회를 들 수 있다. 한국 여성민우회는 1991년 '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모니터 팀을 발족 시키면서 모니터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98년 2월에 발족한 미디어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모니터활동 외에도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디어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유형은 크게 어린이 방송학교, 청소년 미

디어학교, 출장 미디어교육으로 구분된다. 어린이 방송학교 및 청소년 미디어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 연수과정으로 운영된다. 특정기간 동안의 캠프형태로 진행되는 두 프로그램은 미디어에 대한 교양강의와 함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스스로 직접 작품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출장 미디어 교육은 1998년부터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학교 교육과 연계된 '미디어바로보기'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표 1〉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 현황

단체명	대상	주요 활동
경실련 미디어워치	청소년, 미디어강사	중학교 출장미디어교육, 교재발간, 미디어강사 양성
YMCA시청자 시민운동본부	어린이, 청소년, 교사, 일반인	모니터교육, 시청자 TV제작교실, 어린이 영상캠프, 청소년 영상제작 워크샵, 청소년 영상페스티벌, 시청자 워크샵, 출장 미디어교육 등
참교육 학부모회	어린이, 학부모	모니터활동, 컴퓨터/인터넷 워크샵 및 교육캠프, YP 학부모 지도자 양성 및 지역 활동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출장 미디어교육(초등학교), 모니터활동 어린이 방송학교, 청소년미디어학교, 미디어포럼
민언련	사회단체활동가, 학생, 일반인	언론학교, 대학언론강좌, 모니터교실, 글쓰기강좌, 포토저널리즘 강좌, 비디오저널리스트 강좌
매비우스	청소년, 일반인	영상 미디어의 이해 및 제작, 미디어 포럼, 네트워크 모임

민언련의 언론아카데미는 사회운동의 일환에서 시작되어 전문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과는 구별된다. 교육 대상 역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실무자, 대학생 등 전문능력을 필요로 하거나 향후 언론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론학교, 대학언론강좌, 글쓰기강좌, 포토저널리즘, 비디오 저널리스트 교육 등 10개의 강좌가 전문적 능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1991년에 시작되어 2005년 12월 현재 55기 과정을 맞고 있는 언론학교는 한국 언론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더불어 시민의식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매비우스는 1997년 방송 등 미디어 비평 및 미디어 교육을 통해 밝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고, 미디어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치관 형성 및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이다. 이 같은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매비우스는 1999년 '미디어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일반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연중캠페인을 시작으로 현재 까지 청소년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강에스더, 2004).

이상 주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활동을 개략해보았다. 초기 모니터활동 차원에서 진행되던 이들 단체의 활동은 사회적 상황의 변화 및 역량의 축적과 함께 몇가지 주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첫째, 모니터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활동이 미디어의 이해 및 제작과 관련한 미디어교육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단체들이 모니터활동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중심축이 미디어 메시지의 비판적 이해와 창조적 생산능력에 초점을 둔 미디어능력의 함양으로 전환되고 있음이다. 둘째는 미디어교육의 대상이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모니터 활동이 사회운동 및 언론감시 차원에서 주부 및 성인대상의 활동이었다면, 미디어교육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디어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단체들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00년 방송법 개정 이후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시청자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언론수용자운동 혹은 시청자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2005년 기준으로 방송위원회에 등록된 시청자단체의 수만 하더라도 87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방송모니터링, 미디어교육, 캠페인 및 세미나 등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는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이 학교 교육과 연관되어 진행되는 방향으로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비록 일부단체에 한정되어서 실시되고 있지만, 학교교육과 연관된 활동은 향후 공교육 속에서의 미디어교육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방송매체에 치우쳐 있다는 점, 지속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일회성 캠프나 워크샵 위주의 진행이 여전히 다수라는 점, 다양한 단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교육이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로 남는다.

Ⅲ. 시민사회단체의 학교교육 연계 미디어교육 사례

1) 경실련의 중등 미디어교육 시범교실

경실련의 미디어교육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분별력과 비판능력을 갖고 미디어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비판적 시청교육'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체계화하고 정규교육화로 가는 기반을 다지는 것 역시 경실련 미디어교육의 목적이다(김태현, 2004). 이를 위한 경실련 미디어교육의 주요 사업은 중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출장 미디어교육, 즉 '중등미디어교육 시범교실' 운영이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워치는 출장교육을 통해 얻은 경험들과 출장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하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담당할 강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 확보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내용을 체계화한 미디어교육 교재의 개발이다. 즉, 미디어워치의 미디어교육은 중등 미디어교육 시범교실이라는 출장교육을 토대로 미디어교육 교사의 인력풀 운영, 교재개발 사업을 유기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된다.

① 미디어교육 시범교실(출장교육)의 운영 형태

경실련 미디어워치의 중등학교 연계 미디어교육은 1998년 강남 대명중학교의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시작됐다. 하지만, 초기 방송모니터회의 소박한 수준에서 출발했던 미디어교육은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그 결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안정적 교육인력 확보, 예산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김현욱, 2003). 이후 2000년 방송법 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시청자단체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실련의 '중등 미디어교육 시범교실(이하 시범교실)' 프로그램 역시 구체화된다.

시범교실은 미디어교육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교육의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고 이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에 국내 현실에서 과도기적 대안으로 중등학교의 특별활동(CA)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학교교육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현실적 목적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시범교실은 '미디어 바로보기'라는 이름으로 각 학교의 특별활동 속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범학교의 진행은 경실련의 프로그램을 자기 학교의 특별활동으로 활용하고자 신청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경실련의 미디어교육 강사가 파견되는 출장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먼저, 경실련이 공문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은 후, 교육 가능시간의 중복 여부 및 강사파견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학교를 선정한다. 2001년 서울지역 2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첫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2002년 서울지역 30개 중학교, 2003년·2004년 서울경기지역 35개 중학교, 2005년 서울경기지역 40개 중학교로 그 참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경실련, 2004).

〈표 2〉 경실련 중등미디어교육 시범교실 경과과정 및 내용

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강남 대명중학교 특별활동 연계, 출장교육 실시 - 2000년 교육교재 『미디어세계로의 여행 I』 발간 / 미디어교육 강사 교육실시 - 2001년 서울지역 24개 중고등학교 대상 미디어교육 시범교실 운영 - 2002년 서울지역 30개 중학교 시범교실 운영 / 『미디어세계로의 여행 II』 발간 - 2003, 2004년 서울경기지역 35개 중학교 시범교실 운영 - 2004년 『미디어세계로의 여행 III』 발간 - 2005년, 서울경기지역 45개 학교 시범교실 운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미디어의 이해 및 비판적 독해(미디어워치 자체 개발 교재 활용) - 대상: 서울,경기지역 중등학교 (각 학교별 평균 20-25명 참가) - 프로그램: 미디어바로보기 특별활동, 특기적성반, 일일체험프로그램(2004년부터) - 기간: 매해 3월-12월(학기에 따라 상,하반기 구분) - 형식: 경실련 미디어강사 파견, 특별활동 연계

시범교실의 운영은 매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지만, 학교의 특별활동과 연계되어 진행되기에 학사일정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된다. 프로그램은 미디어워치가 자체 개발한 교재와 연관된다. 애초 미디어워치는 『미디어세계로의 여행 I』(2001), 『미디어세계로의 여행 2』(2002)를 제작했고, 2004년에는 그간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미디어세계로의 여행 3』을 발간해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표2 참고). 내용은 TV, 신문, 인터넷, 영화, 만화 등 각 미디어의 유형에 따른 이해와 미디어 재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수용자의 통찰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총 20개의 주제 중 강사의 재량에 따라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주제교육을 진행 할 때에는 시청각자료를 결들임으로써 교육적인 효과와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 제작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방송국, 애니메이션센터, 스스로넷 등 현장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식의 폭을 넓히는 보완재로 활용하고 있다(김현옥, 2004).

〈표 3〉 경실련 미디어바로보기 교육프로그램

〈2002 미디어 세계로의 여행Ⅱ〉	
01. 미디어의 이해	11. 누구를 위한 광고인가?
02. 특종을 잡아라	12. 광고 기획회의
03. 나도 시사 만화가	13. 대중음악의 세계
04. 보도 사진 바로보기	14. 뮤직비디오가 텔레비전을 만났을때
05.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의 세계	15. 시사보도 프로그램 어떻게 볼것인가
06. 애니메이션 제작실습과 견학	16. 다큐멘터리가 보인다!
07. TV프로그램 골라보기	17. 영화 꼼꼼히 보기
08. 쇼 오락 프로그램 바로보기	18. 나도 영화평론가!
09. TV프로그램 모니터 따라잡기	19. 인터넷과 우리
10. 지금은 편집중!	

〈2004 미디어세계로의 여행Ⅲ〉	
01.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란 무엇인가(내가 미디어의 주인)	
02. TV 바로보기(1) TV특성에 대한 이해	
03. TV 바로보기(2) 쇼,오락 프로그램 바로 보기	
04. TV 바로보기(3) 드라마 재미있게 보기	
05. 뉴스 뉴스는 세상을 보는 창	
06.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맛보기	
07. 연예저널리즘 스포츠신문과 연예정보프로그램 어떻게 볼 것인가?	
08. 광고 광고를 읽다니요?	
09. 대중음악 대중음악 속으로	
10. 영화(1) 산업으로서의 영화, 문화로서의 영화	
11. 영화(2) 헐리우드 영화 다시보기	
12. 영상 읽기 영상언어의 세계로	
13. 신문 바로보기(1) 신문이 보인다!	
14. 신문 바로보기(2) 나도 시사만화가!	
15. 신문 바로보기(3) 보도사진 바로보기	
16. 만화 바로보기(1)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애니메이션	
17. 만화 바로보기(2) 즐거운 만화세상-출판만화	
18. 인터넷(1) 미디어로서의 인터넷	
19. 인터넷(2) 전자상거래 매체로서의 인터넷	
20. 인터넷(3) 인터넷 속의 또 다른 인터넷 블로그	

* 출처: 김현옥 (2004). p.39.

경실련 미디어교육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미디어강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미디어교육 지도자 인력풀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사교육 프로그램은 시범

교실 운영을 준비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2000년부터 실시됐으며, 이후 매해 시범교실의 진행과정에 따라 필요인력의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2000년부터는 미디어교육 강사교육프로그램과 강사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 지도자 워크숍을 운영함으로써 교육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기존의 경실련 미디어교육 강사 및 현직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집중과정과 2차 연간과정을 실시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안정적인 인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강사 및 지역 미디어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를 모집하여 집중적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연간 과정으로 진행되는 전문심화 교육을 통해 신규강사 및 기존 미디어 강사들에게도 전문성 담보를 위한 지속적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표 4〉 경실련 미디어강사 교육프로그램(2004년도 사례)

기본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디어란 무엇인가? / 미디어교육의 이해 2. 신문, 어떻게 볼 것인가? / 보도사진 읽기 3. 애니메이션의 세계 4. TV 바로보기 / 쇼·오락 프로그램 바로보기 / 시사·보도·다큐의 이해 5. 방송제작의 이해 6. 광고의 비판적 이해 7. 영화읽기와 바로보기 8. 인터넷/인터넷 게임/모바일 미디어 다시보기
전문심화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의 경향과 이해 2. 신문 바로보기/보도사진 읽기 3. 광고의 이해 -광고 분석을 중심으로 4. 영상언어읽기 5~7. 방송제작의 이해 및 카메라 촬영실습 교육 8. 대중음악의 세계와 비판적 이해 9. 뉴스,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저널리즘 현상과 과제 10.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과제-외국사례 및 국내사례 분석

* 출처: 경실련 (2004). pp.27-28.

② 경실련 시범교실의 성과

서울,경기지역의 중학교 특별활동 시간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실련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자체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경실련, 2004; 김태현, 2004). 첫째, 중등학교 미디어교육의 실질적인 장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미디어교육의 기반을 확

대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되어 왔던 이벤트성 행사 차원의 미디어교육 한계를 극복하고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었다는 점, 그리고 몇몇 학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경기 일원의 다수 학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긍정성이 평가되고 있는 지점이다. 둘째,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의 미디어교육은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재개발을 진척시키고 있으며, 미디어 강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정기 회의를 통해 교육방법론을 공유 하는 등 통일적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미디어교육을 담당할 지도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미디어교육의 장점은 자체적으로 미디어 강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가운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교사 및 예비인력들이 포함됨으로써 향후 학교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긍정성도 자리한다. 넷째, 학생들이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실련의 시범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험과 훈련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경실련 중등 미디어교육 시범교실은 학교 교육의 과정에 미디어교육을 접목시키는 주요한 사례로서 미디어교육이 정규교과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마련하고 있기에,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학교 미디어교육의 정착과정에 큰 밑거름으로서 소중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 여성민우회의 초등대상 미디어바로보기 교육(2005년)⁵⁵⁾

한국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역시 경실련과 마찬가지로 출장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과 연계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출장미디어교육은 199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아파트부녀회에서 지역시민단체, 초중등학교의 특별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초등대상 미디어바로보기 교육’ 역시 이러한 출장교육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시행됐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디어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실시된 2005년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초등대상 미디어바로보기 교육의 목적

-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미디어의 이용과 비판적 수용에 대한 올바른

55) 제9회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자료집 중 강혜란(한국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의 발표 내용 참조(2005.12)

시각을 키워준다.

●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디어 활용 능력을 키워주며, 합리적 비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미디어를 통한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초등학교 교사 및 운영진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미디어교육이 공교육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안 내용

● 미디어교육 유경험자 대상으로 재교육 및 워크숍 실시

● 7차시+1 연속수업 내용 작성

수업안	수업 목표
미디어 바로보기 1	- 미디어의 개념과 종류 이해 - 미디어 이용습관 점검 및 바람직한 미디어 활용 사고 - 텔레비전 등급제 이해 및 시청가능 등급 알아보기
미디어 바로보기 2	- 미디어 속의 스테레오 타입 찾기 및 현실과의 비교 - 미디어가 우리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이해
방송광고	- 광고의 유형 및 역할 이해 - 광고 바로보기 훈련 - 광고 기획을 통한 광고 메시지 이해
애니메이션	-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 이해 - 애니메이션의 원리 실험 - 주변의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폭력 찾기
뉴스	- 뉴스의 특징 및 제작과정 이해 - 뉴스에 대한 바른 시각 공유
책	- 미디어로서 책의 역할과 중요성 이해 - 책의 다양한 형태와 특징 이해 - 독서습관 파악 및 좋은 책읽기 습관 육성
인터넷	- 컴퓨터에 대한 이해 - 건전하고 즐겁게 사용하는 법 알아보기
뮤직비디오	- 소리와 음악이 주는 영향 이해 - 가요와 뮤직 비디오의 역사 이해 - 뮤직 비디오의 다양한 형태 이해 - 대중음악의 영향 논의

③ 2005년 교육 대상 및 교육 내용

● 서울지역 500여 초등학교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한 후, 신청학교 선정

● 대상학교 및 수업내용: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수업안에서 선택적 진행

대상학교	참여학년/학급수	진행된 수업
방일초등	5,6학년/2학급	미디어바로보기, 인터넷
신계초등	4,5학년/2학급	미디어바로보기, 뉴스, 인터넷
봉래초등	4,5,6학년/3학급	미디어바로보기, 뉴스, 애니메이션, 인터넷
동신초등	6학년/1학급	미디어바로보기, 애니메이션, 인터넷
화양초등	5,6학년/2학급	미디어바로보기, 애니메이션, 인터넷
양원초등	5학년/1학급	미디어바로보기, 애니메이션, 인터넷
신석초등	5학년/1학급	미디어바로보기, 애니메이션, 뉴스, 광고, 책, 뮤직비디오, 인터넷
영일초등	4,5학년/2학급	미디어바로보기, 애니메이션
난우초등	4,6학년/2학급	미디어바로보기, 애니메이션, 광고
영본초등	4,5,6학년/3학급	미디어바로보기2, 뉴스, 애니메이션, 인터넷
창천초등	4,5,6학년/3학급	미디어바로보기, 애니메이션
구로남초등	4,5학년/2학급	미디어바로보기, 애니메이션
등명초등	4,5,6학년/3학급	미디어바로보기, 뉴스, 애니메이션, 책
이수초등	6학년/1학급	미디어바로보기
상대원초등	5학년/1학급	미디어바로보기, 뮤직비디오
방화초등	4,5,6학년/3학급	미디어바로보기, 애니메이션, 인터넷

④ 성과 및 개선필요 내용

- 강사뱅크의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미디어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공감대 확대
- 지역별, 계층별 미디어 이용 습관에 따른 차별화 구체화 필요, 수업의 유연성 필요
- 학생들의 일상적 활용도가 높은 게임, 핸드폰 등에 대한 수업내용 개발이 필요
-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한 차별화된 개선 교육 필요
- 매체의 특성 및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디어 이용 및 콘텐츠 수용에 대한 비판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의 지속성 필요

3) 서울 YWCA의 모니터 활동을 통한 청소년 미디어교육⁵⁶⁾

YWCA는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미디어바로보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청소년 모니터 활동은 모니터교육, 모니터활동, 간담회, 캠페인이 청소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성인 중심 모니터 활동이 그 결과

56) 제8회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자료집 중 김수진(서울YWCA 청소년사업부)의 발표 내용 참조(2004.12)

를 통해 청소년에게 좋은 프로그램과 나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있다면, 청소년 모니터 활동은 청소년 스스로가 프로그램에 대한 선별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TV의 비판적 시청에 대한 안목을 육성토록 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중고등학교 특별활동과 연계된 모니터활동 진행 내용이다.

① 사업 목표

- 포래문화를 활용하여 올바른 시청습관 및 태도의 유지 교육
- 비판적 매체 수용능력 향상
- 올바른 생활양식 함양 및 능동적 자기표현 능력 향상

② 사업 진행 개요

- 진행기간: 2004년 3월-9월
- 장소: 서울YMCA, 서울방원중학교, 서울풍문여자고등학교
- 대상: 해당학교 참가자 및 네티즌

③ 세부 진행 내용

모니터 기본교육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목적 및 내용 소개 - 매체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모니터활동의 이해 - 쇼/오락 프로그램의 특징 이해
모니터 재교육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제작 현장 이해 - 드라마 프로그램, 시사/교양프로그램의 정의 및 모니터방법 이해 - 방송인에 대한 이해
모니터활동 및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 대상: 3개 프로그램 장르 - 쇼/오락 49개, 드라마 21개, 시사/교양 61개 프로그램 ● 모니터 활동 및 추천 - 1차: 각 프로그램의 정의 및 이해, 좋은/나쁜 프로그램 모니터활동 - 2차: 1차 활동 결과 논의, 각 장르별 좋은/나쁜 프로그램 각 10개 추천 - 3차: 각 장르별 좋은/나쁜 프로그램 각 6개 추천 - 4차: 각 장르별 좋은/나쁜 프로그램 각 3개 추천 - 5차: 최종 활동 결과 취합 및 최종 추천 프로그램 선정

④ 평가 및 제언

- 특별활동 학교 섭외의 어려움
- 학교 일정에 따른 진행의 어려움
- 특별활동을 위한 지도교사의 중요성 인식

Ⅳ. 학교교육 연계 미디어교육의 한계 및 제언

시민사회단체가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의 하나는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연간 68시간(34주 기준, 주당 2시간)을 정규교과 시간 외의 특별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별활동은 다시 계발활동과 자치·적응·봉사·행사활동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며, 개별 학교의 운영방침에 따라 시간을 배정한다(정현선 외, 2005). 시민사회단체에서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특별활동은 정확히 계발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보통 주당 2시간 단위로 년 17회 정도의 시간이 배정된 것이다.

앞서 살펴 본 학교교육 연계 미디어교육의 사례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단체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는 가운데 학교 미디어교육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다. 또한, 해가 지날수록 이를 희망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각 사례에서 보여지듯 특별활동과 연계되어 실시된다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컨대, 학교의 협조 정도에 따라 교육의 진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별활동의 전담교사가 없는 경우 수업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으며, 학교 사정에 따른 특별활동 시간의 변동, 부적절한 인원 수 편성 등의 문제들이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로 지적되기도 한다(김현옥, 2004). 여기에 1년 평균 15회 안팎의 교육시간이 충분한 교육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점검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희망 학교 중심이기에 전반적인 공교육의 틀로 위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그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미디어교육을 담보할 강사 수급의 문제 역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다. 경실련의 경우 회원자격의 미디어강사를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충원하는 강사 인력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단체의 사례의 평가에서는 강사문제의 중요성이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형태와 미디어교육 전문 교사의 양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이 논의될 수 있다.

결국, 특별활동을 통한 미디어교육은 정규교과 시간 외라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 미디어교육의 한 유형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 국내 교육과정과 결합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학교 미디어교육의 확장을 위해 또 다른 유형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재량활동 시간의 활용이다. 재량활동은 특별활동과 달리 정규시간 내에 배치된 정규교과라는 점에서 미디어교육이 정규교과 내에 배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재량활동은 초등학교 연간 68시간(주당 2시간), 중학교 연간 136시간(주당 4시간), 고등학교 1학년 연간 204시간(주당 6시간)이 편성되어 있다. 재량활동은 다시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나뉘는데, 교과 재량활동은 선택과목 학습과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심화 보충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생의 요구에 따라 범교과 학습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은 창의적 재량활동에 해당하며, 초등학교의 경우 최대 연간 68시간(주당 2시간), 중등학교의 경우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정현선 외, 2005). 요컨대,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 틀 내에서는 특별활동 외에도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학교 미디어교육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재량활동을 활용하는 미디어교육은 극히 소수의 사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이를 위한 학계 및 사회단체, 교사단체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규교과의 틀 속에서 미디어교육이 정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 필요성을 제고시키면서 현실 가능한 미디어교육의 틀을 모색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제도적 보안을 위한 노력과 함께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심분 활용하는 지혜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Media education of the civil groups:
estimation about the practice in relation to schooling

Eun-Gyoo Kim

Lecturer / Researcher

Communication & Culture Research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As the discussion and practice of Media Education in Korea has deepened, the importance of media education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has emphasized. Media education which has been practiced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is almost doing through club activity or special lecture. However, the examples of media education at the school has relation to civil organizations, rather than in the curriculum of public school system. It means that civil organizations have achieved important role for the practice of media education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work to establish foundation stone for media education at school through the estimation of civil organizations which has accumulated the capacity of media education. This article explore the media education which has practiced by civil organization for the evolution of media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system. As a result, this article insists good use of 'discretion activity' time as well as 'club activity' time at school, and the education system for training the lecturer of media education.

Key words: Media Education, Civil organizations and Media education, Media education and Schooling

참고문헌

강에스터 (2004). 미디어 내가 주인입니다: 매비우스 미디어교육 사례. 한국미디어교육학회 · 문화방송 · 한국언론재단 주최, 제8회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자료집. 2004.12.11.

- 강혜란 (2005). 한국 여성민우회 미디어교육 추진 사례. 한국미디어교육학회·문화방송·한국언론재단 주최, 제9회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자료집. 2005.12.17.
- 경실련 (2004). 경실련 미디어교육 현황과 과제: 중등 미디어교육 시범교실 총평가. 2004 경실련 미디어교육 총평가회 자료집. 1-37.
- 김기태 (2005). 한국 학교 미디어교육의 실태 및 특성.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 편, 『학교로 간 미디어』. 서울: 다홀미디어.
- 김수진 (2004). 특별활동으로서의 미디어교육 사례. 한국미디어교육학회·문화방송·한국언론재단 주최, 제8회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자료집. 2004.12.11.
- 김태현 (2004). 경실련 중등 미디어교육 시범교실 사례. 한국미디어교육학회·문화방송·한국언론재단 주최, 제8회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자료집. 2004.12.11.
- 김택환 (2000). 한국의 미디어교육. 한국언론재단, 『세계 미디어교육 모델』.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현옥 (2003). 경실련 미디어교육 현황.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 제2차 미디어교육 국내 심포지엄 “초중고 교육 현장 속에서 미디어교육”. 2003.6.27.
- 김현옥 (2004). 2004년 경실련 미디어교육 현황보고. 2004 경실련 미디어교육 총평가회 자료집. 38-41.
- 문혜성 (2004). 『미디어교육학』.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박이선 (2004).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미디어교육 및 활동 사례. 한국미디어교육학회·문화방송·한국언론재단 주최, 제8회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자료집. 2004.12.11.
- 안정임·전경란 (1999). 『미디어 교육의 이해』. 서울: 한나래
- 이동우 (2004). 한국 미디어교육의 현황. 『신문과방송』, 2004.11월호, 8-14.
- 이정춘 (2004). 『미디어교육론: 미디어 시대에 살다』. 서울: 집문당.
- 정현선·박수경·심상민 (2005). 교과교육과 미디어교육.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 편, 『학교로 간 미디어』. 서울: 다홀미디어.
- 한국언론재단 (2000). 『세계 미디어교육 모델』. 서울: 한국언론재단
-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 (2005). 『학교로 간 미디어』. 서울: 다홀미디어.
- 경실련 미디어워치. Available: <http://www.ccej.or.kr/media/introduce.html>
- 매비우스. Available: <http://www.mabius.or.kr/index.html>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Available: <http://fairmedia.womenlink.or.kr>
-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Available: <http://watchtv.or.kr/new/main/index.html?page=01>